

이재명 퇴진 압박 이낙연, '김부겸-정세균'과 연합 전선 펴나

김부겸 이재명 병립형 회귀 시사에 "원칙지켜야" 비판 정세균도 최근 당내 상황 우려...공동 행보 전망도 나와 총선 앞두고 등판설에 친명계와 거리둘 것이란 관측도

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. 이 전 대표는 특히 김부겸·정세균 등 당내 중량급 있는 정치인들과 연합 전선에 모색하고 있다. 그 결과에 따라 야권의 내년 총선 전선이 요동칠 전망이다.

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'이재명 체제'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불가론을 띄우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. 법원에 수시로 드나드는 이 대표가 총선 지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.

이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향해 "(당대표가)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,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을 할 법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"고 밝혔다.

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일방 독주식의 당 운영을 지속한다면 비명계와 함께 탈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그는 신당 창당의 뜻을 내비치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.

최근 이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등판설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.

특히 김 전 총리는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.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하자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"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더라도 민주당만이라도 단단한 원칙을 지켜달라"고 강조했다.

김 전 총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문제에 대해선 "민주당의 힘은 다양성 존중, 역동성에 있었는데 최근 이런 모습이 위축됐다"며 "이견을 공격하는 건 백색 테러나 마찬가지로"라고 지적했다.

이에 대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의 인터뷰에 대해 "(이 대표가) 저렇게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로 당을 완전히 사당화로 몰고가니까 김 전 총리도 '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'고 인터뷰한 것"이라고 말했다.

정 전 총리도 당내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공동 행보에 나설 것인 전망도 나온다.

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지는 질문에 "어떤 일을 같이 대응하자는 것까지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다"면서도 "그런데 이 대표가 민주당을 이끄는 이 방식이, '이 상황대로는 안 된다', '이 길로 가면 안 된다'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일치하신 것 같다"고 전했다.

김 전 총리나 정 전 총리가 언급되는 이유는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

책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.

실제로 김 전 총리나 정 전 총리는 당내 위기가 닥쳤을 때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. 총선을 앞두고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직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.

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김 전 총리나 정 전 총리의 등판 시점이 압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. 최근 김 전 총리나 정 전 총리의 행보가 정치 재개 이후 당내 친명계와 거리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전 대표와의 연합 전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

친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당 통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.

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"그분의 살아온 역정을 봤을 때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"며 "당의 최고 어른이고 가장 경륜이 높은 분인데, 이렇게 당이 위기에 있을 때 당을 단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"고 말했다.

김영진 의원이 이 전 대표의 탈당 및 창당



가능성에 대해 "이 전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 정치 인생과 모든 과정을 다 해왔기 때문에 검토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"고 했다.

김희면기자

여수시의회, 지방세분야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'환영'

전남도 대표로 발표 나선 김승신 주무관에게 직접 축하와 격려 전해



여수시의회(의장 김영규)가 지방세분야 발표대회에서 여수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승신 주무관에게 직접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.

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.

김영규 의장은 지난 11월 28일 의정실에서 전남도 대표로 사례 발표에 나선 세무9급 김승신 주무관을 면담하고 직접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.

여수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중 지방세분야 발표대회에서 '최우수상'을 수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장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.

김승신 주무관은 '언제 어디서나 꼭 잡는다' 대포차라는 주제로 발표했다.

이는 여수시가 개발한 우수시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지명령차량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으로 찾은 대포차를 현장에서 즉시 점유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.

김영규 의장은 "참신한 아이디어로 여수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큰 상을 받은 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여수=기동취재본부

여당 지도부, '친윤·중진 희생' 수용할까

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에 '친윤·중진 희생'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결정했다. 당 지도부가 오는 4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를 한다.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여당의 혁신 성패가 결정될 예정이다.

내년 총선 공천에서 '친윤·중진 희생'을 요구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던졌지만, 원하는 답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. 결국 혁신위는 무력화되고 공천관리위원회로 공이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.

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4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'지도부·중진·친윤(친윤석열계) 혁신의 총선 불출마 또는 합지출마' 안건을 보고한다.

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에 대한 답을 4일까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.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줄 것도 함께 제안했지만, 이는 김기현 대표가 바로 거절할 바 있다.

공천권 양도 또는 희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것이지만, 지도부는 한 가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. 최고위에 해당 안건이 보고된다고 해도 진지하게 이를 검토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.

혁신위는 지난 10월 말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도부에 '6호 안건'까지 제안했다. 하지만 이중 받아들여진 안건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 하나뿐이다.

한 최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"희생을 의결 안건으로 보기보다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가 핵심"이라며 "결국 김기현 대표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. 수도권 격전지에서 뭘 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화답할지를 정해야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번 희생 요구 안건은 앞서 권고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.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뚜렷한 입장을 밝힌 의원은 거의 없다.

내년 총선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단까지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. 자신의 거취 문제는 혁신위 최후통첩과 별개의 사안이며,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친윤·중진 의원들의 입장이다.

한 중진 의원은 "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"이라며 "총선에서 해가 되거나 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배제하는 것이지,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"고 전했다.

김수권기자

호남신문 광고안내

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.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. 믿고 맡겨 주십시오.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.

기사제보
(062)
222-2580

광고문의
(062)
228-2580

축하·근조화환 전문점



전국 꽃배달 서비스

60,000

농장직영 광주꽃도매

직통전화 010-2400-7774

주문팩스 062-946-0053